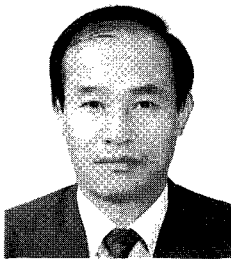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새니테크

### □ 야외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균 감염조사

최근 유럽, 미국을 비롯하여 닭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도 '91년부터 농수성의 닭 위생관리강화 특별대책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업의 일부분으로 오키나와현 북부 가축보건소에서는 양계장과 도계장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야외에서 항체 검사결과 198수의 검사수수에서 8수가 양성이었다. 다음 도계장에서 육계농장과 산란계농장의 출하계의 맹장과 내용물, 부화장의 초생추에서 균의 분리시험을 하였다.

육계농장의 261개 검사중 살모넬라균이 55주가 분리되었으며 부화장의 초생추에서는 분리되지 않았다. 산란계농장의 65개 검사중 1주가 검출되었다.

이들의 살모넬라균 감염의 역학적인 조사를 위하여 동일계사 내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의 시기별 조사와 분리한 살모넬라균의 프라스미드 푸로필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동일계사 동일계군 내에 여러종의 살모넬라균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따라서 농장의 감염은 계사의 소득과 위생관리에 의하여 근절할 수 있지만 새로 도입된 계군에는 동일농장의 타계군에 존재하는 다른 살모넬라균이 침입하여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살모넬라균 감염은 부화장에서 기인하는 것보다 계사간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농장의 울인올아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NK. 94. 12)

### □ 강독형 감보로병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억제 영향

이행항체를 보유한 육계에 강독형 감보로병 바이러스(WIBDV)를 감염시킨후 변화와 기존의 감보로병 바이러스(IBDV)에 의해 일어나는 면역억제현상을 나가사끼현 중앙가축보건소에서 시험하였다.

육계를 A~D군의 4계군으로 나누어 A군에는 WIBDV, B군에는 IBDV를 7일령과 14일령에 경구접종한 후 A, B, C군에는 14일령에 마렙병 바이러스(MDV)를 복강내 접종하였다. D군은 대조군으로 하였다.

시험결과 병리해부검사에서 A, B군에서 웨브리셔스낭(BF)의 위축이 보이고 A군에서는 간의 황색화와 1수의 간과 장에서 마렙병변이 보였다.

조직검사에서는 A군에서 비장의 협조직종대와 림프구 감소가 보였으나 A, B군 모두 BF의 림프여포는 거의 재구축되었다.

MD병변은 A, B, C군에서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항체검사성적은 IBD중화항체가는 42일령에 각각 5120, 2940.7, 8.7, 7.6이었고 뉴캐슬병 역가는 28일령에 13.93, 16, 73, 52, 21.11이며 42일령에는 18.38, 36.76, 16, 12.13이었다.

MD병변의 출현과 더불어 본 시험에서는 WIBDV와 IBDV감염에 의하여 면역억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NK. 94. 12)

#### □ 폐계육의 양계용 사료 이용에 대하여

폐계 등을 열처리하여 폐계분과 시룽 등을 처리하여 만든 부화장 부산물분을 사료에 첨가하여 산란계와 육계에서 사료원료의 가능성에 대하여 군마현 축산시험장에서 검토하였다.

폐계분은 조지방이 약 40% 부화장 부산물분은 조회분 29%, 칼슘 10% 이었다.

시험은 육계와 산란계에 부화장 부산물분 5%, 10%, 폐계분 5%, 10%, 첨가구(4구)와 무첨가구(대조구)로 하여 28일령부터 56일령까지 28일간 급이하였다.

산란계에서는 폐계분과 부화장 부산물분 5% 첨가구에서는 대조구에 비하여 산란일령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10% 첨가구에서는 약 3g 많았다.

사료섭취량은 1일 5g정도 감소하였고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향이 보였다. 난질(하우유닛, 난각질)과 계란의 맛은 차이가 없었다.

육계에서는 전 시험구에서 도체율, 육질의 맛 등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체중은 개선되었으나 생존율은 약간 낮은 경향이 보였다.

(NK. 94. 12)

#### □ 살모넬라균 등에 항균효과가 있는 위생복

일본 합성섬유회사에서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등에 항균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용한 위생복 “세니타-30”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폴리에스테르섬유의 용융방사시에 항균제를 주입하여 만든 것으로 섬유에 부착하는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병원 내에서의 감염의 주요 병원체인 메치시린 내성 포도상구균에도 항균성이 인정되고 있다.

항균효과는 세탁을 반복하여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가공회사 등 위생복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WP 94. 11)